주가	환율	금리
+11.39	+0.20	보합
1,352.74 (코스피지수)	961.50원 (원/달러)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72.83	(+7.73)
다우(30일)	11,382.91	(+12.97)
나스닥(30일)	2,185.73	(+13.43)
닛케이	16,140.76	(+268.7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22엔	(+0.73)
유로 달러 환율	1.2824달러	(-0.05)
3년만기 회사채	5.09%	(보합)
콜금리	4.49%	(+0.01)

은행 수익, 예대마진 의존

새로운 수익원 창출위한 혁신 필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지적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낮춰 예대마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당국자가 은행들의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 의존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 재경위원과 언론인 등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은행의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이자수익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은 44.6%, 영국은 46.4%, 캐나다는 48.9%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1%(2005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미흡해 주택담보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설 '침체'… 4분기 광주경기 '악화'

올 4·4분기 광주지역 체감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전도영)가 광주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가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지난 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2.2%인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5.5%로 집계됐다.

이는 환율하락, 원자재가 상승,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감소하고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예상되면서 지역기업들이 체감경기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3·4분기 실적치는 '70'으로 전분기(84)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지난달 31일 행정·농민단체·언론사·학계 등으로 이뤄진 전남농협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 FTA 및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기한도래 등 안팎 환경 때문에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전남농협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판로확대, 농촌사랑운동, 농촌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성건설-화순 노기리 자매결연

청정농산물 사주기 등 농촌돕기

보성건설(대표 임진택)은 지난달 30일 전남도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청정농산물 사주기, 농번기 일손돕기 등 농촌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성건설은 이날 화순군 북면 노기리 마을회관에서 임직원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고 마을회관용 대형 냉·난방기 1대를 기증하는 등 상호간의 우의를 다짐했다.

노기리 마을은 현재 40가구, 7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등을 통해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수완지구 공동모델하우스 오픈 첫날

명품신도시 '수완 신드롬'
2만여인파 몰려 '대성황'

참여업체 분양 열기 후끈…방문객들 견본주택 비교 발걸음 분주

광주 수완지구 11개 참여 건설사의 31일 공동분양에는 개별 및 통합모델하우스 오픈 첫날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주건설, GS건설, 코오롱건설, 현진, 모아, 한양건설 등 참여 건설사들은 각종 경품 및 기념품 지급,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사 브랜드와 수완지구의 특장점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광주 최초 통합모델하우스 관심**=이날 광산구 수완지구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광주지역 최초로 시도된 통합모델하우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합모델하우스는 ▲대주건설 ▲대방건설 ▲모아주택 ▲새한건설 ▲신한건설 ▲영무건설 ▲한양 등이 공동운영하며, 1개사당 600~700여평의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특히 총 면적이 1만5천여평(주차장 포함)에 달해 호남권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지구 다운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체간 분양경쟁 '후끈'**=수완지구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업체들간 분양경쟁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오픈 직전까지 평당 분양가나 분양조건 등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에 부칠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각 업체들은 중도금 무이자대출과 무료 발코니확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수요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예비 청약자들을 자사의 견본주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도 뜨거웠다. 업체들은 자동차에서부터 가전제품, 순금 증정 등의 다양한 경품을 내거는 한편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 대주건설은 여성 4인조 전자현악단인 '코라'를 초청해 오픈식 분위기를 북돋웠으며, 한양도 3인조 여성 밴드의 흥겨운 연주를 통해 오픈식을 자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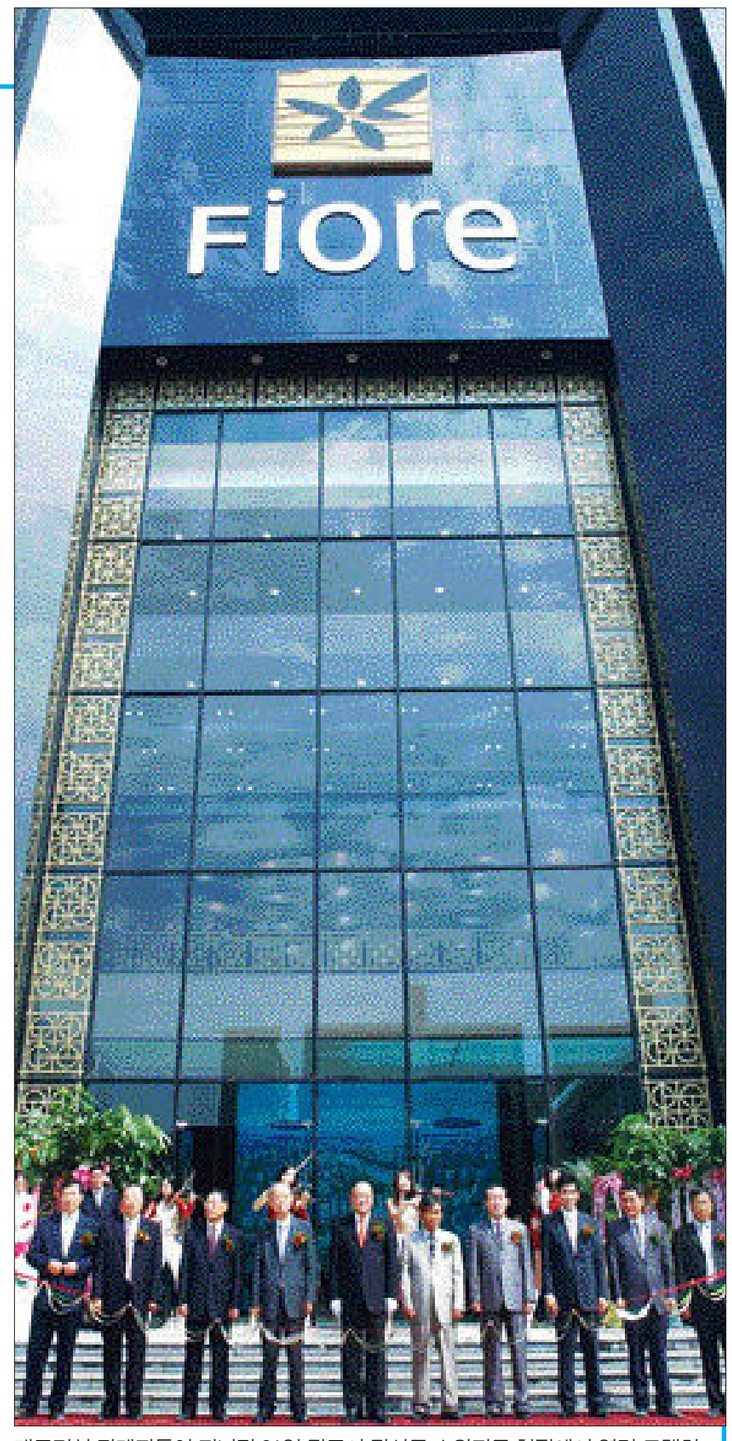
◇**모델하우스도 '각양각색'**=참여 업체의 분양 열기는 '건설사의 얼굴'인 견본주택에서 절정을 이뤘다.

수완지구 현장에 마련된 통합모델하우스에서는 대주건설, 모아주택, GS건설 등의 견본주택이 인기를 끌었다.

대주건설은 대형박물관을 연상케하는 초대형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대주건설은 연건평 1천400여평 규모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시설,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했다. 또 2층 로비에 마련된 '수완지구 현장 전망대'는 망원경을 통해 택지개발이 한창인 수완지구의 규모나 위치 등을 가늠케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서구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 개별 모델하우스를 차린 코오롱건설과 현진 등도 독특한 디자인과 웅장한 외관을 갖춘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코오롱건설은 '오리엔탈 프리미엄'이란 브랜드 컨셉에 걸맞게 내부와 외관의 마감재를 광목천과 흙 등 자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

광주 수완지구 통합모델하우스 오픈식에서 윤정호 대방건설 사장, 최승대 한양 상무, 우정석 신안 부사장, 장재율 모아주택 사장, 이찬호 GS건설 주택사업본부장, 한우석 수완사업단장, 남진희 새한건설 사장, 박재홍 영무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김광희 유퍼스트 대표〈왼쪽부터〉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대주건설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현장에서 열린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선 금호문화재단 이사, 송종원 법무사, 이영준 대주건설 사장, 김포천 대주문화재단 이사장, 허재호 대주건설 회장, 김익중 대주건설 부회장,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정춘배 (주)신영 전무, 허 숙 대주건설 이사, 김남중 대주건설 이사.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년째 적자…회사 살리자" 노조 동의

■ 캐리어 광주공장 대규모 감원 사태

사측 "한국서 사업지속" 중국 이전설 일축

(주)캐리어 광주공장(대표 맥스김)의 대규모 감원파동이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캐리어는 전체 1천100명의 30%에 달하는 330명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아 퇴사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명예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콤프레셔 생산라인과 에어컨 분리형 실외기 일부 라인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구조조정 등 긴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경제에서는 캐리어의 이번 구조조정이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국내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만큼 중국 이전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측도 "이미 두달 전 캐리어의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능한 한 지역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명퇴자들에 대한 대우, 생산라인 가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강제적인 명퇴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2~3년 전부터 적자폭이 늘면서 이미 100여명이 명예퇴직했고, 이어 이번 300여명의 명예퇴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고유가·환율하락 등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노조원과 회사가 새로운 투자유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 그룹 산하로 세계 최초의 에어컨 제작사인 캐리어의 국내법인 중 하나인 캐리어 광주공장은 1985년 캐리어사와 대우그룹이 공동으로 지분에 참여, '대우 캐리어'로 설립됐다. 에어컨과 컴프레셔 등을 생산해오다가 2000년 캐리어사가 100% 지분을 확보하면서 회사이름도 '캐리어'로 변경됐다.

지난해 3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가 유럽쪽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는 3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목포 재래시장 상인회 만난 이현재 중기청장

"시장 현대화에 연말까지 70억 지원"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목포 동부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비와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비 등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목포지역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와의 간담회〈사진〉에서 이 청장은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숙원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목포 자유시장 주상옥 회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한데 대해 "목포 재래시장 현대화에 올 말까지 7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청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중 60%를 중기청, 40%를 해당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지역의 경우 2004년 이후 동부시장 등 6개 시장에 96억7천500만원이 지원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T아웃소싱시스템	[HNT]SK텔레콤 114 정규직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2	062-350-6333
서광이엔지㈜	광주신세계 시설관리 사원모집 기계설비 운영	고졸/경력2년	1600~1800	09/04	062-524-1127
㈜오리온	광주지점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4	062-373-2391
케이디씨스템스㈜	노동조합 사무실 사무보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2-3459-0722
㈜신성금형	기술개발부(품질검사, CAD/CAM)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61-383-6201
대진정광㈜	무역직원-수출입업무/거래선발굴/바이어상담/오더관리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08	061-473-1081
㈜대신건설 이엔씨	건축안전진단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374-2008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9/09	062-942-9234
㈜조이아드	마케팅/기획전문가 모집	대원졸/경력무관	2200~2500	09/09	062-523-2530
윤선생영어교실	관리선생님/상담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9/10	062-526-0565
삼성서비스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 상담 및 고장제품 접수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10	062-376-4910
㈜기영미다스	분야별 정규직 사원(영업/대리점/텔레마케터/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0	062-952-944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순천공장 착공

해룡산단내 연산 3,000t 규모

순천시와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순천 해룡산업단지 내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연산 3천t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윤석만 포스코사장을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덩어리 형태의 마그네슘 인고트(Ingot)를 가열로에서 용해시켜 중간소재인 슬라브 제조공정이 없이 곧바로 얇은 판재로 만드는 스트립 캐스팅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마그네슘 판재는 강도와 연성이 일정하고 성형성이 우수해 휴대폰, PDA, 노트북 등 휴대형 전자부품 케이스나 단조 부품에 활용된다.

이날 착공한 마그네슘 공장은 총 2만여평의 규모로 건설되며, 전남신소재센터와 순천시, 순천대학 등과 연계된 세계적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육성되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